논쟁으로 풀어 본 한국, 한국인

1980년대 불교의 현실참여 논쟁에 불을 지폈던 민중불교운동. 사진은 민중불교운동연합이 조계종 옛 총무원 청사 앞에서 개최한 '불교자주화와 민주화를 위한 대회'.

말 · 말 말 -대한민국史를 바꾼 핵심논쟁50
권오문 지음
삼진기획 |1만5천원

일부 광신도에 의해 파괴된 단군상.

1960년 겨울, 서울 광화문 거리. 비구승들이 '불법에 대처승없다'는 플래카드를 치켜든다. 명분은 이랬다. 일제가 이식한 대처승 제도를 말끔히 걷어내겠다는 것. 논쟁의 발단은 사실 이보다 앞선다. 이승만 대통령의 '정화유시'가 비구 · 대처간 갈등의 뇌관을 건드리면서 비롯된다. 곧바로 양측은 '절 뺏기' 싸움에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운다. 이후 세속법에 기댄 법정 다툼은 결국 비구승들의 승리(?)로 끝난다.

이른바 '불교정화운동' 논쟁. '사찰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놓고 벌인 이 논전(論戰)은 20세기 한국불교사에 씻을 수 없는 오욕과 깊은 상처를 남긴다. 그리고 이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아직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말 · 말 말-대한민국史를 바꾼 핵심논쟁50>은 정화운동 등의 불교논쟁을 비롯해 광복이후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진행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대표적인 논쟁 50가지를 책으로 묶었다. 해방 이후 상해 임시정부와 이북 인민공화국 사이의 주도권 경쟁, 민족문학 논쟁 등 격동기 한국사의 굵직한 쟁점은 물론, 최근 대립 중인 배아 복제, 전교조와 교총의 교육이념 논쟁, 호주제 폐지, 사형제 존폐 등의 핫이슈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이 책은 논쟁으로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한 눈에 읽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주제별 논쟁을 시대 순으로 배치해 쟁점은 무엇인지, 전개는 어떠했는지 꼼꼼히 짚어주고 있기에 그렇다.

이런 배열은 각 논쟁들이 시대나 분야를 불문하고 서로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령 민중불교운동을 적극적인 현실참여로 볼 것인가, 교리적 정당성 확보로 볼 것인가에 관한 80년대 민중불교 논쟁은 '예수도 민중이다'는 민중신학 논쟁과 별반 차이가 없다. 또 개신교의 토착화와 단군신화 해석에 둘러싼 쟁점도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로 불거진 민족주의 열기와 맞닿아있다.

책은 이처럼 그간 한국현대사를 달군 격렬한 논쟁들을 통해 역사적 맥락에서 어떻게 논쟁을 일궈왔는지 보여줘 당대를 산 사람들의 생각과 고민, 그리고 논란을 가져온 문제들 되짚어보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종교인들이 '사형제 폐지'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 왼쪽). 여성단체가 마련한 '초경 축하파티'.

광복이후 현재까지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문화 대표 논쟁 50가지 되짚어

불교계를 달군 논쟁으로는 보조국사 지눌과 성철 스님의 '돈오점수, 돈오돈수' 논방, 조계종 법통과 관련된 정체성 문제, 민중불교 운동 등이 불교 논쟁의 흐름을 이끌었다. 특히 '돈점' 논쟁은 '깨침의 본질'과 '닦음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룸으로써, 여는 불교논쟁과 달리 생산적인 쟁점을 끄집어내 불교사상의 깊이와 폭을 넓혔다.

불교 논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책은 최근 '간화선이냐 위빠사나냐'를 두고 벌이는 수행법 논쟁, '대승이냐 소승이냐'의 한국불교 정체성 문제, '기복과 정법'의 기복불교 논쟁, '여자에겐 불성이 없다'는 성차별 문제 등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우선 수행법 논쟁의 경우, 한국불교의 중심 수행법인 간화선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문제의식이 논쟁의 출발이 된다. 그러면서 지은이는 한국의 선수행 기풍이 새롭게 탈바꿈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수행법 쟁점 핵심과 논쟁흐름을 상세히 소개한다.

무엇보다도 지은이는 전통불교의 간화선이 위빠사나에 밀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진단한다. 그 이유로 바쁜 현대인들이 짧은 시간 안에 깨달을 수 있다는 위빠사나 서적과 강좌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현실을 꼽았다. 위빠사나 수행법 확산에 따른 간화선 전통을 따르는 수행자들의 '속앓이'도 가감 없이 언급한다. 현재 조계종단이 다른 불교 수행법들을 용인 내지 묵인할 수 있다는 너그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속사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지은이는 말한다. 간화선 수행지침서 발간, 선원장 초청 법회 등을 예로 들며, '안간힘을 쓴다'는 표현을 쓰는 데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기복불교 논쟁은 불교의 정체성과 맞물린 문제로 접근, 불교계의 가장 첨예한 논쟁의 하나로 평가한다. 지은이는, 정법을 제일의 가치로 하는 불교계에서 기복은 여전히 불교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토대로서 기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한다. 대신 조건을 단다. '불교는 미신에 가깝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없앨 것은 없애고, 씻어내야 할 것은 씻어내고, 벗겨야 할 것은 벗겨내어 참다운 불교 본연의 모습을 되살려야 한다는 따끔한 충고도 잊지 않는다.

세계일보에서 오랫동안 종교 전문기자로 지낸 지은이는 "일관된 시각에서 현대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집대성한 것이 특징"이라며 "이들 논쟁은 곧 '우리 역사와 당대 지식인의 고민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환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번쯤 새겨봐야 할 담론"이라고 말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전문가 서평

한국을 버려라 이성용 지음 | 청림출판 |1만원

근래 우리 주변에는 외국으로 이민을 떠나거나 조기유학을 보내 놓고 기러기 아빠가 된 사람들이 적지 않다.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여건상 떠나지 못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머지않아 인류는 다시 유목민이 된다고 하지만, 한국은 그렇게 '떠나고 싶은 나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인가?

저자는 베인엔컴퍼니 소속의 컨설턴트 이성용 대표. 그는 이 책에서 컨설턴트의 시각으로 한국과 한국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진단하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한국인의 유전자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대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한국의 문제점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우리에게는 존경하는 한국인이 없다는 점, 잭 웰치 같은 위대한 CEO가 나올 수 없는 문화, 낮은 수준의 기업문화와 거래관행, 정부정책의 신뢰성과 교육문제, 경영투명성의 문제, 경쟁심과 불안감의 문화 등 수 많은 문제들이 한국을 디스카운트하는 원인이

떠나고 싶은 나라가 될 것인가

위기의식 느끼고 초발심으로 다시 시작하자

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 문제점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GEO의 독특한 교육과 인재양성 과정, 일본이 '기무치'를 브랜드화 하는 과정, 중국 경제의 급성장 배경을 우리의 현실과 대비하면서 우리의 과오를 들추고 있다.

한국인의 공동체적 행동방식을 단순히 '사회주의적 성향'으로 비하한 부분이라든지, 함께 비행기를 탄 김우중 씨에 대한 평가 부분에 대해서 필자로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고,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하는 대신 대안제시에 인색한 점이 좀 아쉽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점을 구석구석 파헤친 내용이 매우 신랄하고 공감가는 대목이 많다. '갑'과 '을'간에 거래의 불공정성이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비체계적인 교육훈련시스템(1년 경험, 20년 되풀이) 등에 대한 내용은 경영현장에서 뼈저리게 느껴온 필자의 체험과 일치한다.

특히 흥미를 끈 것은 '경쟁력 반감기', '전문성 반감기(professional half-life)'라는 새로운 개념이다. 저자는 어떤 개인이 입사당시 갖고 있는 전문성(기술 등)의 50%를 상실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년 정도라고 한다. 10년이 지나면 최초능력의 10% 정도 밖에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대학졸업 후의 '제도적인 학습'이 매우 중요한 근거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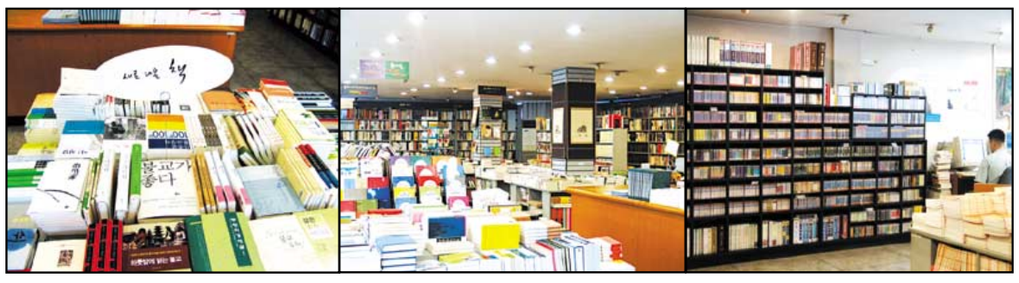
저자의 말처럼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움직이는 위기의식이 필요하다. 지금이 바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정한 사회변화를 시작하는 '초발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것만이 우리가 다시 위대한 세대가 되는 길이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는 길이다. 그것만이 한국을 버린 사람들이 후회하면서 되돌아오게 하는 길이다.

■**손기원** (지혜경영연구소 대표)

불교서적의 요람으로 불자들과 함께한 10년! 여시아문은 여러분의 개인 법당입니다.

Hot!

국내 모든 불서를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 주문으로
빠르게 받아본다!



불교의 기초부터, 선지식 이야기까지!
대한민국 대표 불교서점 '여시아문'과 만나십시오

마음을 찾아주는 60가지 이야기
선사들의 삶과 깨달음

방경일 글, 김장열 그림
국배판 변형 / 257쪽 / 값 10,000원
도서출판 솔바람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말씀 / 신국판
컬러 도판 20컷 / 269면 / 9,000원
시공사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도법 지음
신국판 / 382쪽 / 값 11,000원
아름다운 인연

행자의 길은 늘 깨어있어야 한다
노스님의 젊음

지묵스님
신국판 / 336쪽 / 값 10,000원
우리출판사

고려불화
실크로드를 품다

김영재 지음
신국변형판/ 384쪽 / 값 20,000원
운주사

수도자에게 주는 글
해탈의 길

성철스님
신국판 / 248쪽/ 값8,500원
도서출판 장경각

선사들이 띄우는
깨달음의 편지

정념 엮음
신국판 / 292쪽/ 값10,000원
장 승

현명한 사람은 마음을 다스린다

슈리 담마난다 지음, 홍종욱 옮김
신국판 / 240쪽 / 값 8,900원
지혜의 나무

★ 본 연합광고 서적은 책방 여시아문에서 11월 30일 까지 특설코너를 마련하여 판매 할 예정 입니다 ★

대한민국 대표 불교서점 책방 여시아문 인터넷 도서주문 yosiamun.com Tel : 02)737-0695 Fax : 02)737-0696 <법공양 상담합니다>